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음 9월 17일) 제23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총력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때까지 적극 대응 나서 균형발전 취지 따라 전북 중추도시 전주 지정 필요성 권의

국회가 다음 달부터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전주시는 전주 특례시가 실현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법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기로 했다.

특히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워져 가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

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뼛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시는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

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 등 70만명이 찬성하면서 힘을 실기도 했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나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전주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 축하하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무궁화화 활용 작품 전시회에 오덕선 (췌에이치이엔(한국예술문화연구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완주군 산림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를 하고 있다.

새만금박물관 내년 상반기 착공

개발청, 오늘 실시계획 고시 2023년 개관 목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 실시계획을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시계획은 중앙부처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고고·역사·민속뿐만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함께 다룰 계획으로 현재 기증·기탁 운동을 통해 전 시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박물관은 2023년 제25회 세계 팜버리대회 개최 전 개관을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한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김윤상
명 : 사회·경제부장

<10월 14일자>

대사습놀이 서울로 Go! Go!

전주 대사습년, 17일 개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서 남도민요·태평무·가야금병창 등 다채

대한민국 최고 권위 국악 등용문이자 민속음악 분향인 전주에서 전승돼온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이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야외 공연장)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대사습년(傳)'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대축제이자 300년 역사를 가진 향토축제로 자리잡은 '전주대사습놀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전주대사습년(傳)은 △남도민요 △태평무 △가야금병창 △판소리 △삼률이춤 △경기민요 △단막창극 △한량무 △남자소리의 농부가△전주 기잡놀이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 등 43명이 참여해 남산골 한옥마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흥겨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직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공연을 선사하고, 앞서 과거를 조명하고 최고의 국악경연대회로 명성을 떨친 전주대사습놀이의 위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전주의 정체성이 담긴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서울공연'을 준비할 계획이

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자랑스러운 전통 국악공연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주대사습이 국악의 중심이자 선수가 되어 관객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장원,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표어로 진행된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는 최고의 소리가 펼쳐지는 살아 숨 쉬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도민, 전국서 네번째

전북도, 37만명 중 2만4971명으로 경기·서울·충남에 이어

전북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37만명 중 24,971명(6.8%)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치료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

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도내 11개 보건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2개소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